

지역 매아리

유진섭 정읍시장

시민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성황산 해맞이 산행을 하며 정읍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기원했다.

유진섭 시장은 "기해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정읍,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정읍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산행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재다짐하고 시민 대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황산 정상에서는 신년회호 사자성어인 활짝동시의 마음으로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다 함께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부안군수, 새해 첫날 공약사업 실천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해 첫날 공약사업으로 영농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천했다.

부안군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영농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민선 7기 부안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60억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금리는 농가부담 1%, 3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7천만원이다.

영농안정기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6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1월 하순 경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군, 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진안군은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일부터 독감예방 취약계층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임산부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진안군에 임부등록을 한 임산부와 진안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1살 이내의 자녀를 둔 산부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독감의 대표 합병증인 폐렴 예방 뿐 아니라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영아의 독감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은 진안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받을 수 있다.

부안군, 백산성 해맞이 행사 성료

기해년 새해 첫날, 백산면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백산성 해맞이 행사가 주민과 관광객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일 오전 7시에 부안군 백산면 백산성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백산면 해맞이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원)의 주관으로 동학농민운동의 포연적자인 백산성에서 백산면민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날 행사는 백산면 풍물단(단장 정병업)과 함께 성터밧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및 새해맞이 소원풍선 날리기 등 본행사 외에도 신년떡국 나눔 및 군고구마 체험 등 부대행사로 주민들 간에 훈훈한 정과 덕담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2019년도 문화관광 대표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선정

무주군, 2년연속 쾌거

국·도비 3억여원 확보

무주반딧불축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 대표축제가 되며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무주군은 3억여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글로벌 육성축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부문 대상,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축제글로벌 명품 대상 수상, 등에 선정된 바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주제(빛)와 대상(어린이·가족),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축제글로벌 명품 대상 수상, 등에 선정된 바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주제(빛)와 대상(어린이·가족), 지방잡(친환경)에 집중해 호평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반딧불'과 '반디별', '낙화'로 연결된 '빛' 프로그램이 이목을 끌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진 찍기 좋은 공간으로 연출됐던 축제장은 관람 만족도를 배가시켰다.

이외에도 주 관관객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들을 다수 신설해 체험·참여축제로서의 면모를 뽐냈으며 먹거리와 교통, 안전, 편의 등 관관객들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조성에도 정성을 쏟아 호평을 받았다.

손님맞이 전면에 나섰던 주민들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다. 무주군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중심으로 1,000여명의 주민들이 축제장 인근 청소와 축제장



무주반딧불축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 대표축제가 되며 2년 연속 선정됐다.

안내, 부스운영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읍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향토식당 운영, 교통정리와 주차장 안내, 재능자랑, 전통놀이 시연, 반딧불이 서식환경 보호·탐사 안내 등을 통해 반딧불축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는 "무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무주반딧불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알아봐 주신 24만여 관광객들과 손님맞이에 정성을 쏟아주시는 군민여러분 덕분에 '반딧불이와 환경'이라고 하는 특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육성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정부지정 대표축제 선정의 동력이 된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과

고향의 숲 반디가 노니는 세상'을 주요 테마로 9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으며 특히 '반딧불'과 '반디별', '낙화'로 연결되는 빛의 축제로 주목을 받았다.

핵심이자 인기 프로그램인 '신비탐사' 여건을 개선하고 '낙화놀이' 규모를 늘려 무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통 불꽃놀이를 선사했다.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반디별 소풍'은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외 대낮에도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디나라관(주제관)을 비롯한 △반딧불이의 먹이인 토종 다슬기와 치어를 방류하는 '남대천 생명+', △'풍동날리기' 등이 인기를 누렸으며 전통방식의 △'남대천 살다리 놀이'가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기해년 밝혀

군민 1000여명 참여... 고창의 안녕과 번영 염원

"쫄, 돌, 하나!! 둥!둥!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작년 12월 31일 밤 군민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를 열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인기가수 초청공연으로 시작으로 고창군민의 새해희망을 담은 영상 상영, 33명의 군민대표가 참여한 총 33회 북을 울리는 타고식으로 진행됐다.

군민의 화합과 희망을 담아 '손에 손잡고'를 합창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노래로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했고, 마지막에는 제야의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가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소원지 쓰기 및 경제살리기여성회 등 자원봉사단체가 제공하는 뜨끈한 어묵 국물도 인기를 끌었다.

1월1일 아침에는 고창읍성 성황사와 대신면 범우선사, 상하면 장사산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세밀한 화 속에서 1000여명의 해맞이객이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기원제와 기원축문 봉독, 새해 덕담 나누기 등 새해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떡국과 따뜻한 차, 기념품이 준비돼 참여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유재영 모양성보존회장은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잘살며, 모든 일에서 술술 풀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북소리, 해맞이 행사를 군민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새해에도 자랑스런 고창 만들기 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01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정읍시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이며, 평가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2명, 자치단체 32명(시·도별 2명), 지방세연구원 2명은 작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각 시·도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시·도 교차 합동평가를 실시했고 이후 현장 확인 평가 과정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 했다. 평가는 정량지표 3개 분야(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9개 항목(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홍보·교육,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과 정성지표(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정량평가 100점과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한 결과 정읍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이로써 정읍시는 전국최우수라는 영예와 함께 4,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정읍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오현중 감사과장과 백운기 납세자보호관, 노수현 납세자보호위원의 헌신적인 팀워크가 있어서 가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금연사업 평가' 전북 우수기관 표창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가 2018년 건강증진사업 금연분야에서 전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내실 있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흡연의 폐해 및 유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눈 높이에 맞는 순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경로당과

노인대학 및 도서관, 전북과학대학교, 대형마트 등 생활터 별로 이동 금연상담실 운영해 개인별 상담과 함께 CO측정 및 기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437세대가 있는 정읍코아타운 년가아파트를 제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안내관 설치 및 건강홍보관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금연시설로 등록된 2,735개 기관 및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위해 금연홍보 및 점검을 실시했다.

산서면, 익명의기부금 이어져

장수군에도 익명의 '얼굴 없는 천사' 기부금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은 최근 면사무소 민원대에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라고 쓰여진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가 두고 간 봉투에는 5000원권, 1000원권으로 채워진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받은 기부금을 이용해 생필품 등을 구매해 관내 저소득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현 면장은 "기부천사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든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도내 기관장 신년사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 이수혁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수혁입니다. 새해에는 온 가정에 사랑과 건강,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있으니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른 격언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지난해 2018년은 영광과 회망,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교차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중심적 민의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점,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8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마주한 한 해였지만 우리 염원이었던 한반도 평화정착이 크게 한걸음 내딛은 해이기도 합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와 주 독일대사, 국정원 1차장 등 평생 공직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매진해온 저로서는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올 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등 남북미 3국 지도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2018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일(任重道遠)'을 골랐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여러 국내 정책이 뜻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

미정상회담, 이후 펼쳐지는 조울 과정에서 진전의 속도가 다소 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핵의 폐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고 밝힌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재의 조울 과정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덧 붙여 어떠한 지혜가 나오더라도 실행을 위한 자양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입니다. 특히 민주당에 큰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 주신 정읍시민과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는 복이 많은 해라고 합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께 깊숙이 전해 질 수 있도록 항상 소중히 살피고, 고민하면서 기대와 격려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주군, 건강증진분야 유공기관 선정

무주군이 전북도로부터 2018년 건강증진분야 유공기관(금연) 표창을 받았다. 건강증진분야 유공기관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캠페인을 비롯한 금연 환경조성, △생활 터 순회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 진행 및 금연서비스 제공, △스마트클리닉을 통한 통합건강 증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도시공원 12곳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지역 1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 금연구역 939곳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축제장



과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배달업체와 식품제조업체와도 협력해 각종 전단지과 생 산품 포장용기에 "금연" 문구를 새겨 넣는 등 금연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작은도서관 10곳에 창작소설 '금척' 비치

진안군은 최근 군민들이 진안을 소재로 한 창작소설 '금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작은도서관 10곳에 비치했다.

금척 소설은 마이산을 찾은 태조 이성계가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계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소설이 비치된 작은도서관은 △(진안읍) 푸른꿈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마이 작은도서관, 노계3동 작은도서관, 마이성결 작은도서관, △(동량면) 능길마을 작은도서관, 성산 작은도서관

관 △(정전면) 숲속 작은도서관, (백운면) 흰구름 작은도서관, △(마령면) 진안사랑 작은도서관 △(성수면) 북카페 불안 작은도서관 등이다. 금척을 읽고자 하는 군민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방문 해 도서를 대출하여 볼 수 있다. 특히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에서는 소설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또 금척 소설 내용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김중록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 설문조사 실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는 진안홍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18 진안홍삼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770여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진안홍삼의 인지도 부문에서는 '알고 있다' 62%, '잘 모르겠다' 37%로 진안홍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홍삼제품 구매 시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홍삼성분' 78%, '브랜드' 14%, '맛' 5%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연구소 개발 홍삼제품으로는 '홍삼스틱 제품' 33%, '홍삼화장품' 24%, '홍삼 마스크팩' 14% 순이었다. 제품 개발로는 '대중적인 홍삼제품', '미용관련 제품', '기능성관련 제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